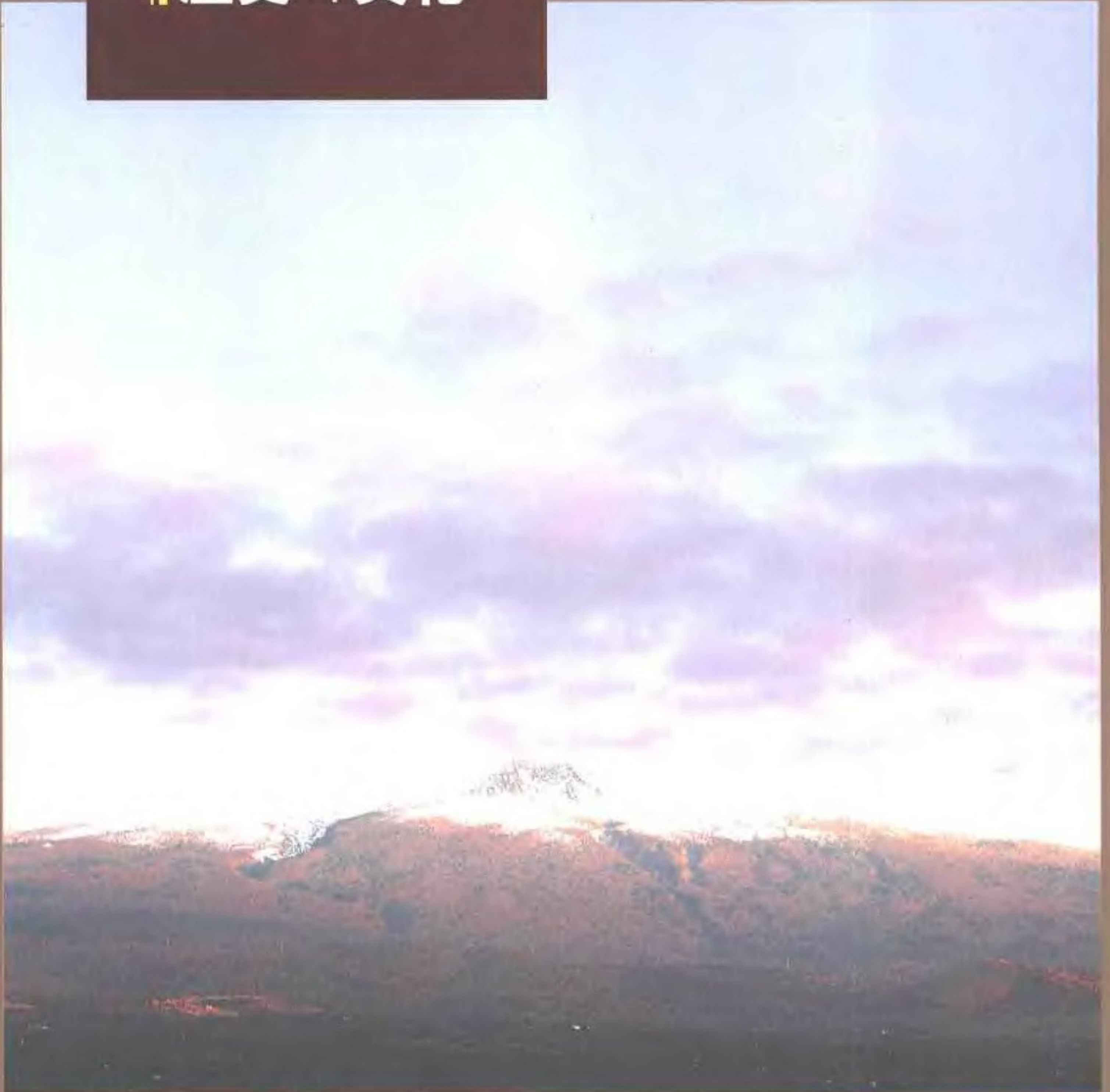


耽羅,
歷史와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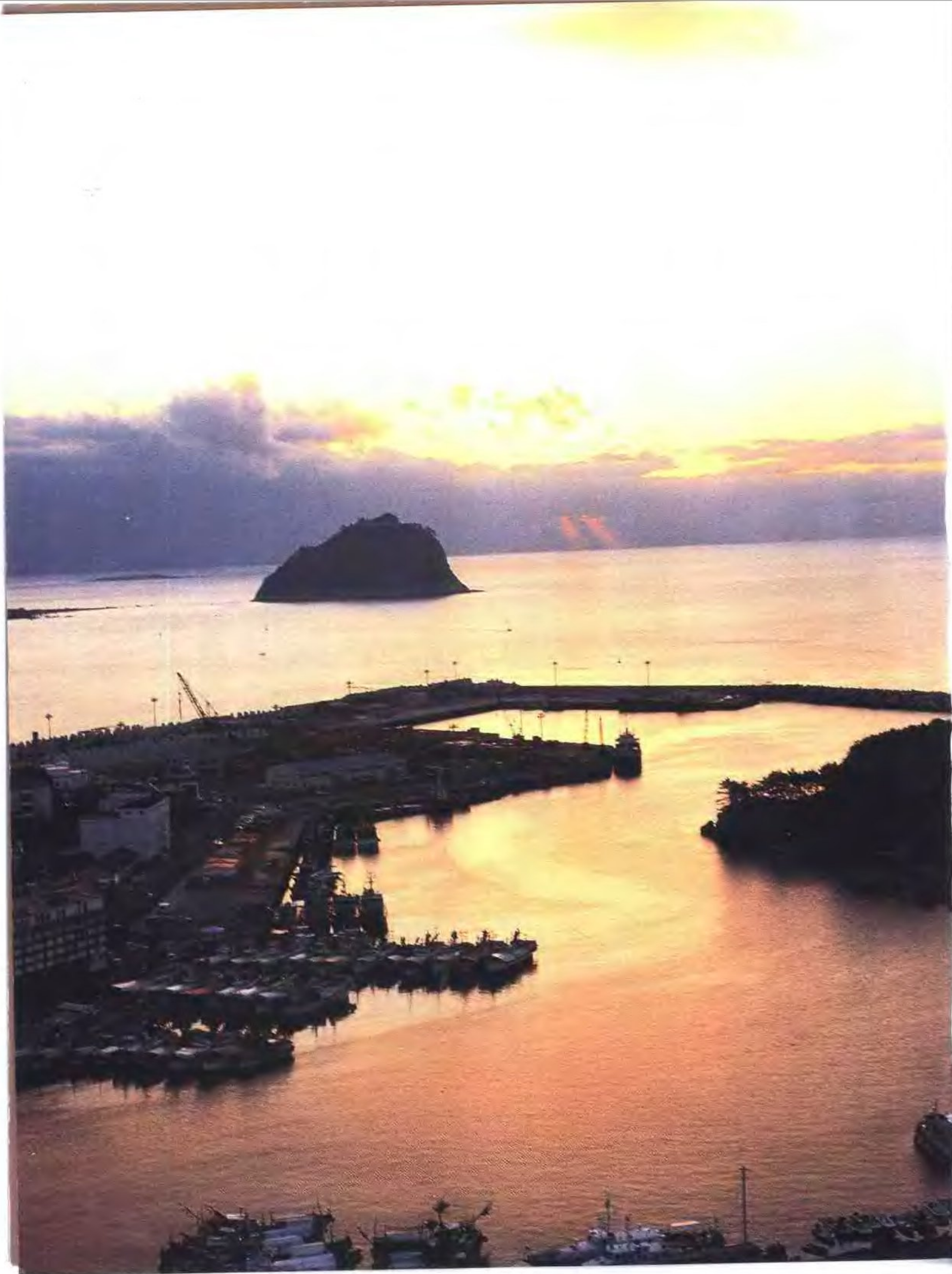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amna

199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耽羅,
歷史와 文化

The History and Culture of Tamna
199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차 례

인사말	3
I 탐라국 이전의 환경과 문화	9
1. 제주도의 형성과 지리적위치 / 11	
2. 고산리 신석기문화 / 16	
3. 북촌리 신석기문화 / 21	
4. 상모리 무문토기문화 / 26	
II 탐라국의 형성과 문화	33
1. 삼성신화와 유적 / 35	
2. 탐라의 명칭 / 38	
3. 마을유적의 분포 / 40	
4. 삼양동 마을유적 / 42	
5. 광지리유적 / 45	
6. 제주도 지석묘 / 48	
7. 용담동 무덤유적 / 52	
8. 광지리식토기 / 57	
9. 철기 / 60	
10. 조개도구 / 63	
III 탐라국의 발전과 문화	65
1. 성주·왕자·도내 / 66	
2. 용담동 제사유적 / 68	
3. 고내리유적 / 70	
4. 광지리유적 / 72	
5. 고내리식토기 / 74	
6. 회색도기 / 78	
IV 탐라국의 교역	83
1. 주호의 교역 / 84	
2. 한대 화폐 / 86	
3. 유리·옥·금동유물 / 88	
4. 도자의 교역 / 92	
V 탐라국 이후의 문화	97
1. 탐라국 이후의 성주 / 98	
2. 삼별초 유적 / 100	
3. 법화사지 / 102	
4. 존자암지 / 110	
5. 제주목관아지 / 112	
논고	121
1. 삼대의 지역성과 삼무의 전통문화 (宋成大) / 123	
2. 탐라의 원주족 (洪淳晚) / 129	
3. 탐라의 명칭과 대외관계 (高昌錫) / 134	
4. 고대탐라국의 형성 (秦榮壹) / 139	
5. 제주불교의 기원 (金奉玉) / 144	

耽羅,
歷史와 文化

The History and Culture of Tamna
199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발 간 사

작년 2월 28일 발족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그 동안 묻혀졌던 제주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협의회는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친 장기계획 아래 우선 탐라시대의 실상을 규명하고 전체적인 제주사 연표를 작성하는데 전념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작년에는 그 동안의 탐라사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유적 관련 사업으로 우선 애월읍 금성리 석축유적을 조사하여 탐라시대 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입증하여 주는 중국화폐 등 다수의 유물을 발굴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알려진 탐라시대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답사토론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또한 도내의 각계의 전문학자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작년 12월 12일에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도내 학자 8명, 국내 학자 11명, 일본 학자 3명 등 국내의 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제주사 정립의 기틀이 상당 정도 마련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탐라 역사와 문화'는 본 협의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문헌 자료 못지 않게 탐라국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고고학적 유적 유물 자료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탐라사 연구의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역사 문화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 내 전문학자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제주 역사와 문화가 관심을 끌게 되었고 도민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제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간행된 '탐라 역사와 문화'는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볼 때 적절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를 간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청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의회의 여러 회원님들께도 감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제주사정립사업을 심적, 물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여 주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전 도민의 관심 속에 펼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 신구범 전지사님, 김영호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8월 일

제주도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회 장 신 용 화

축 사

제주 문화는 제주섬이 형성된 이래로 제주의 옛 선인들이 살아온 역사적 경험
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진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는 중
앙 왕조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탐라 왕국의 자존을 잃어버렸음은 참
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지금 새로운 희망의 빛이 과거를 통하여 살아나고 있습
니다. 제주가 1만여 년 전 섬으로 형성된 이후 최초로 살았던 탐라 선인들의 유적
지가 한경면 고산리에서 발굴되었고 제주시 삼양동 유적도 탐라국의 형성 과정
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역사의 맥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97년 2월 28일 발족된 제
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으로 유적
유물의 해석과 문헌자료 검토가 절실함을 인식하여 본격적인 연구 결과, 탐라국
연구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제주 역사 문화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자랑스런 문화 지원과 예술 진흥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는 21세기 제주의 위상과 제주인의 삶의 질의 척도는 문화 수준이 결
정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세2기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키면서, 도정 방
침을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로 정하고, 문화 예술의 진흥에 역점을 두어
창의적인 문화제주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용 있는 도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용
하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도록이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8월 일

제주도지사 우 근 민

축 사

'탐라 역사와 문화'의 발간에 즈음하여 1백만 내외도민 모두와 더불어 참으로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발간한 '탐라 역사와 문화'는 비단 우리 지역 사회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학사적으로도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화, 정보화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스스로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제 비로소 제주인의 시가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경의 개념마저 희박해지고 문화의 무국적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을 감안할때, '탐라 역사와 문화'는 우리 도민들에게 자기지역의 뿌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주민의 건전하고 성숙한 자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 전체에 대한 공감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간의 의의는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란 시민교육의 기초입니다. 특히 '탐라 역사와 문화'와 같은 지방 역사를 집대성한 연구서는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동시에 각자에게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시민으로써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훌륭한 시민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도 그만큼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産苦 끝에 탄생시킨 '탐라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이 협의회의 각종 연구성과들이 제주도를 알고 이해하려는 모든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명실공히 기존 학계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라역사는 결코 망각될 수 없고 또한 망각되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허상이 아닌 실상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구한 시간 속에서 온갖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대사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그 저력을 갖고 있는 탐라사의 발굴과 정리는 우리의 책무이자 이것이 제주인의 자존과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제주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탐라 역사와 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년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씀을 드립니다.

1998년 8월 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김 영 호

주관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협의회위원

강만생 강영봉 강창화 고광민 고창석
권오영 권인혁 김동진 김봉욱 김영돈
김찬흡 박원실 신용하 유철인 이창규
전경수 진영일 최몽룡 현용준 홍순만
박찬식(간사)

지원기관
제주도

협조기관
국립광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편집
이창규 이상미

유물사진
한석홍문화재사진연구소

유적사진
이창규 강창화

표지·편집 디자인
한정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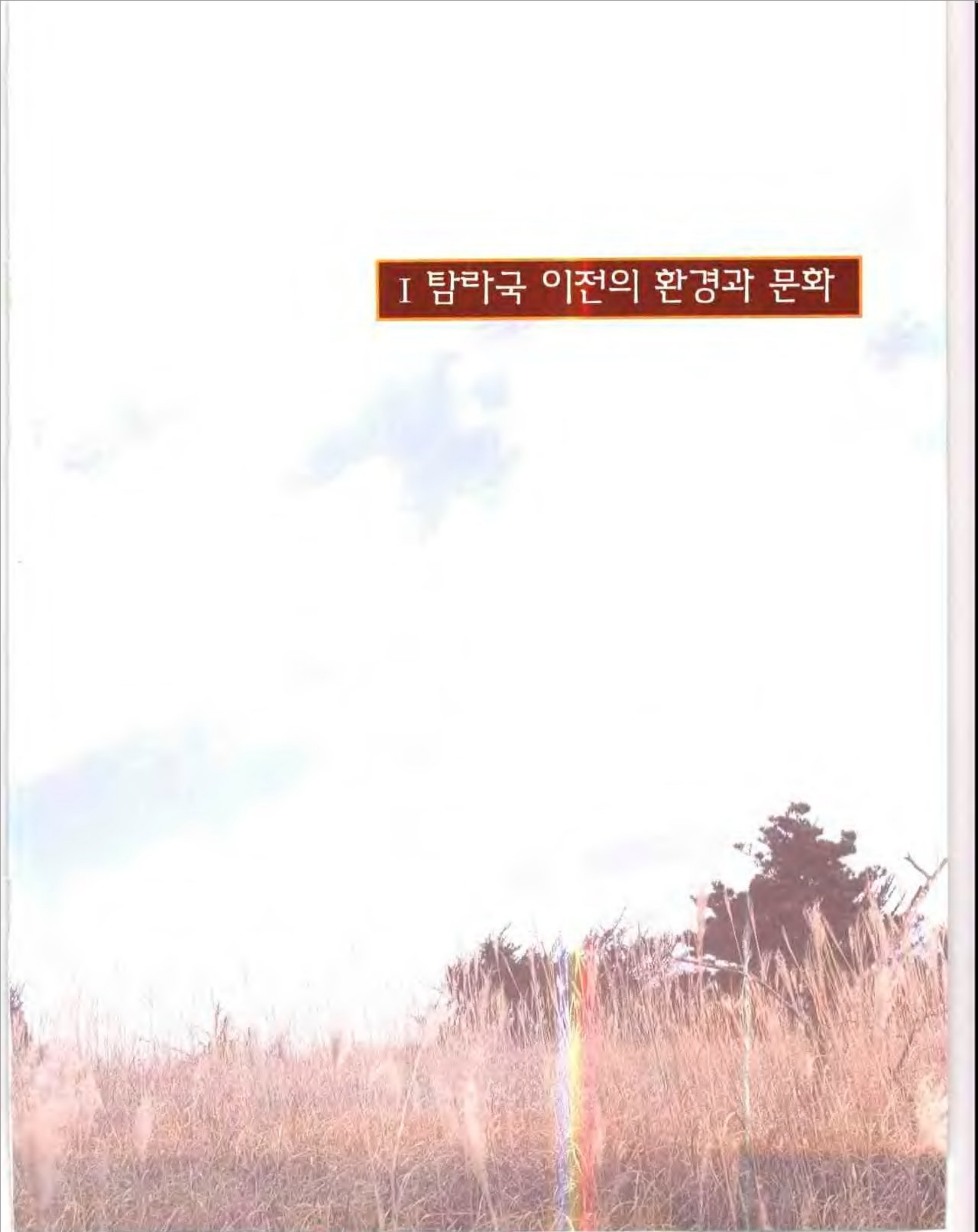
분해
(주)아트비엘

제본·인쇄
세광인쇄공사

차 례

인사말	3
I 탐라국 이전의 환경과 문화	9
1. 제주도의 형성과 지리적위치 / 11	
2. 고산리 신석기문화 / 16	
3. 북촌리 신석기문화 / 21	
4. 상보리 무문토기문화 / 26	
II 탐라국의 형성과 문화	33
1. 삼성신화와 유적 / 35	
2. 탐라의 명칭 / 38	
3. 마을유적의 분포 / 40	
4. 삼양동 마을유적 / 42	
5. 광지리유적 / 45	
6. 제주도 지식묘 / 48	
7. 용담동 무덤유적 / 52	
8. 광지리식토기 / 57	
9. 철기 / 60	
10. 조개도구 / 63	
III 탐라국의 발전과 문화	65
1. 성주·왕자·도내 / 68	
2. 용담동 제사유적 / 68	
3. 고내리유적 / 70	
4. 광지리유적 / 72	
5. 고내리식토기 / 74	
6. 회색도기 / 78	
IV 탐라국의 교역	83
1. 주호의 교역 / 84	
2. 한대 화폐 / 86	
3. 유리·옥·금동유물 / 88	
4. 도자의 교역 / 92	
V 탐라국 이후의 문화	97
1. 탐라국 이후의 성주 / 98	
2. 삼별초 유적 / 100	
3. 법화사지 / 102	
4. 존자암지 / 110	
5. 제주복관아지 / 112	
논고	121
1. 삼나의 지역성과 삼부의 전통문화 (宋成大) / 123	
2. 탐라의 원주족 (洪淳晩) / 129	
3. 탐라의 명칭과 대외관계 (高昌錫) / 134	
4. 고대탐라국의 형성 (秦榮壹) / 139	
5. 제주불교의 기원 (金奉玉) / 144	

I 탐라국 이전의 환경과 문화



제주도의 지리적위치



한반도

산동반도

제주도

큐슈

영파

오키나와

상하이

타이완

I 탐라국 이전의 환경과 문화

1. 제주도 형성과 지리적위치

제주도의 위치와 형성

여덟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1,845Km의 면적을 갖는 제주도의 중앙경위선은 127° 27' E, 33° 22' N이다. 또한 한반도와는 59Km의 폭을 갖는 제주해협을 사이에 마주한 해남반도의 해남곶이 최단 지점이 되고, 일본과의 최단 지점은 260Km떨어진 사세보가 되며, 중국과의 최단 지점은 제주-서울간 비슷한 거리로서 420Km떨어진 양쯔강구(상하이)가 된다. 이것은 제주도의 위치가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대륙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속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이 3지역과 문물을 교류하는 데에 유리했음을 의미한다.

문화지리적으로는 높으면서 넓은 완사면을 갖는 한라산의 형상과 그 위에 제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문화 때문에 제주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라 일컫기도 하지만, 자연지리적으로 제주도는 화산활동의 결과 탄생된 섬(洋島)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용암터널에서 발견되는 대륙에 서식했던 황곰빼나, 돌창(石槍) 등 동·식물이나 유물의 분포로 보아 대륙과 무관한 완전한 양도(洋島)라기보다는 한때 연속의 상태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육도(陸島)로서 마치 건조기후지역의 도상구릉(Inselberg) 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차 화산활동융합과 동시 후빙기를 맞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와 지금 모양의 섬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분화구, 분출물의 층서·절대연령, 심부시추자료 등으로 보아 120만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크게 네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1활동기(B.P.120만년~B.P.70만년)에는 현재의 해수면 하부에 분출되어 있는 현무암류로부터 산방산조면암까지 분출했다. 따라서 이 시기 말기의 해안선은 산방산에서 월라봉을 잇는 동서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을 뿐이다. 산방산, 용머리, 각수바위, 월라봉, 새지기오름 등은 모두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제2활동기(B.P.60만년~B.P.30만년)에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담는 표선리 현무암이 분출하고 만장굴도 형성되었는데 지금에 유사한 해안선을 이루게 되었다. 제3활동기(B.P.30만년~B.P.10만년)에 마침내 한라산체가 형성되고 오백장군도 이때 만들어졌다. 제4활동기(B.P.10만년~B.P.2.5만년)를 통하여 동서 장축방향으로 측화산들이 형성되었고, B.P.2.5만년에 이르러 백록담이 완성되면서 오늘날같은 제주도의 골격이 완성된다. 물론 측화산을 만드는 후화산활동은 11세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화산이 아닌 휴화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宋成大)

2 만년전의 제주도 주변



1 만년전의 제주도 주변



빌레못 동굴과 구석기문화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적으로 홍적세(新生代 第四期)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랜기간 동안 여러번 교차되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연환경하에 있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250만년전의 일이다. 한 반도에서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60만년전부터로 북부지역인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유적이 있다.

제주도의 구석기유적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342호)유적이 알려져 있다. 이 동굴은 용암동굴로 총연장 11,749m로 주굴과 여러개의 가지굴로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1973년 동물화석이 발견됨에 따라 정영화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로 인해 구석기유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조사기록을 보면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제1문화층에서는 동물화석과 타제석기가 발견되었으며, 제2문화층에서는 타제석기만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제주도산 현무암석재를 이용하였으며, 대형석기와 박편석기로 구분된다. 대형 석기는 찍개 3점, 박편도끼 4점이 있다. 박편석기는 굵개 26점, 칼 12점, 찜기 2점, 송곳 1점, 부리형석기 1점, 홈날석기 1점, 톱니날석기 1점이 있다. 보고문에 의하면, 이러한 석기 구성은 중기구석기(6,7만년전~3만5천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물화석은 갈색곰(*Brown bear, Ursus arctos*), 적록(赤鹿: *Red deer, Cervus elaphus*), 노루(*Roe deer, Cervus capreolus*), 기타 동물화석이 알려져 있다. 그 중 갈색곰은 대륙성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가 한 반도와 연륙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화석은 당시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高才元)

1. 동물뼈

매월읍 어음리 빌레못동굴출토
(上)길이 21cm